

윤리경영, 경쟁적 시장경제의 '활로'

기업윤리와 도덕성, '기업생존의 결정적 요소'

건전성 · 공정성 · 이윤환원 ·

고객만족 · 품질강화 · 근로자 후생 등...

글_ 위평량(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경제학박사)



우리나라에서 윤리경영이 강조 된 지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정도경영이라는 언어가 더 일반화 되어 있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함께 확산된 기업경영의 병폐와 불투명성에 관하여 일반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해졌다. 정도경영을 외치던 기업 및 재벌그룹들

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정도경영 추구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 측면이 있었으며 이때부터 윤리경영으로 수사(修辭)의 대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정도경영보다는 윤리경영이 더욱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엄격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경영은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일부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업윤리 행하기에는 너무도 원칙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실행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쟁격화 '비윤리경영' 유혹 키워...

업종별 '윤리경영준수협의회' 도 바람직

왜 윤리경영이 아니면 안 되는가? 기업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법인(法人)이다. 즉 사람과 같이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 결정을 한다. 윤리경영의 범주와 실행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업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라는 조직은 자연인보다 자본과 정보력 그리고 이를 종합한 분석하는 능력 등

이 월등한 주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윤리적이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아울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규모의 불법과 부정들로 인한 기업의 도산은 많은 직접적인 피해자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차원에서 윤리경영이 강조된다. 셋째, 윤리적 사고의 강화는 조직내부의 개인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통한 애사심 증진은 물론 현대 기업의 필수적인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한 전사적 품질관리를 가능케 할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은 최첨단의 경영기법이 도입되면서 그 변화 속도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이외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생존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기업의 윤리성과 기업의 도덕성이다. 즉 경쟁심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과 편법 및 불공정 경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잉태하고 있다. 이 요인은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격화된 경쟁결과는 물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성과지상주의, 이에 대한 경영진의 단기성과 극대화 추구는 기업성과의 과대포장을 유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다만 출판업계와 같은 경쟁이 매우 심각한 업종일수록 더 심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강조되며 값어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제 시장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質)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의 질(質) the quality of business ethics and morality까지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존전략과 대응방식은 그 차원을 달리하여야 한다. 업계

자율적으로 실질적인 윤리경영준수협의회 같은 것을 외부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법도 좋다.

사회적 편익 추구, 비윤리 용인 사회시스템 개선, 현장 실천 필요

한편 그렇다면 윤리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사하여야 하는가? 첫째, 사회적 비용을 생산과정에서 흡수하여야 한다. '행위결과에 따른 이윤은 자신에게, 폐해는 타자(他者)에게' 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문제가 이윤극대화 포장된다.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보다는 사적 편익(private benefit)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기업본질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윤리와 도덕은 매순간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문제를 기업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기업의 탈윤리적(amoral)이고 비윤리적(immoral)인 행위에 대해서 기업가들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체계가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의 행위 결과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용인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기업조직은 익명의 베일(veil of anonymous) 때문에 소속내부 임직원 등의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보다는 훨씬 더 비윤리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윤리적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윤리경영의 수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자연스러운 것인 한편, 이러한 환경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윤리에 대하여 이종영(1999)의 언급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의무론적 입장이다. ①경쟁자에 대한 공정경쟁, ②고객에 대한 성실과 신의, ③투자자에게는 공평과 형평, ④종업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⑤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⑥정부에게는 준법과 책무 준수, ⑦외국정부와는 공정한 협조, ⑧지구환경과는 공생관계의 모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의 한계원리(marginal theory)를 기업윤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동, 1999)거나, "경제윤리는 경제와 윤리의 복합어로서 경제와 관련되어 경제적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 (안동규, 2002), "좁은 의미는 법규와 내부사규 준수들을 의미하였으나,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 정직·신뢰·존중·공정성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자사의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시키는 방식" (노동경제연구원, 2004) 등에서 보여지듯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실천인 것이다.

윤리경영, 시대와 세계의 흐름, 시장경제 트렌드의 핵심

이러한 흐름이 우리만의 야단법석인가? 결코 아니다. 기업윤리경영은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그 시초가 되며, 1976년의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환경 및 노

동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거쳐 1997년 ILO의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98년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의 기업경영 경향은 2008년 ISO26000의 설정을 목표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제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훨씬 뛰어넘은 광범한 의미를 포괄한 가운데 진전되고 있다. 세계의 추세는 윤리경영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확장되고 있다.

종합해 보자. 윤리경영의 핵심은 먼저 기업 건전성을 높이는 것,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이윤의 사회 환원과 소외 계층에 대한 공헌을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 소비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기업내부의 근로자가 만족하여야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 생태환경보호 측면 및 기업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은 이제 좋든 싫든 이러한 세계흐름에 조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폐쇄경제가 아니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상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세계흐름을 뒤쳐진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선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하다. **※**

● 이 글을 쓴 위평량은 현재 경실련 정책부실장과 경제정책국장,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및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동하는 경제학》, 《천년기업과 국가경영에 관한 제언》,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관계》, 《사회공헌과 기업가치관계》, 《윤리경영과 기업가치관계》 등이 있다.